눈길 끄는 톡·톡·행·정

캔·페트병 AI 수거기 추가 설치

여수시 모두 24대 운영…자원순환 앞장

여수시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사진〉 5대를 추가 설치해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동항 수변공원, 죽림2공원, 문수 대성베르힐 등 3개소에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5대를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여수시의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총 24대로 늘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품목별로 압착해 수거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회원 가입자가 2000 포인트 이상 모으면 본인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수퍼빈'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사용하면 되고,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수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수퍼빈' 앱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스마트폰으로 포인트 적립내역 조회, 환전하기, 자동수거기 위치찾기 및 상태보기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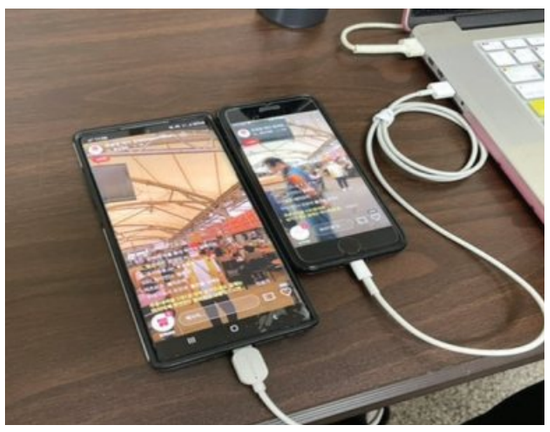
시는 2019년 5월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캔과 페트병 1270만여개, 25만4000여 t을 분리 수거했으며, 현금 9700여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원 순환도시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통시장 갈 수 없다면 접속하라"

곡성군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진행 호응



곡성군이 오는 8일 그립(Grip) 어플을 통해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사진〉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핸드폰에 그립 어플을 설치하면 누구든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상인들도 친근하게 소비자와 만나 자신의 상품을 상세하게 알릴 수 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곡성군이 추진했다.

과일, 채소, 건어물 등 다양한 물품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곡성군에서 배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액 구매도 부담이 없다. 군은 지난달 13일 4시간 동안 그립(Grip)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첫 라이브 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53명의 소비자가 248개의 물품을 구매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진행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신선도 등 고객의 궁금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이다. 상품은 당일 우체국 택배로 배송, 소비자가 다음날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인들이 직접 생산한 채소를 빠르게 판매하고,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기도 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반응을 검토해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고흥군 유자청 유자맥주 원료로 첫 수출길

고흥군은 지역 특산품인 유자청이 체코의 글로벌 맥주회사 필스너의 신규제품인 유자맥주의 원료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유자차의 원료인 유자청 형태로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흥유자 수출품목 다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유자 체코 수출은 2019년 8월 유럽 판촉행사와 함께 수출협약을 맺은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협약 이전인 2018년 7톤에서 2020년 53톤으로 약 8배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106t을 수출해 연말까지 220t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유자의 유럽시장 수요확대에 맞춰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EU에 '고흥유자 상표권'을 등록해 더 많은 유럽 국가에 고흥유자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생태계 교란 양미역취 제거 나섰다

주민 제거반 편성 8월까지 작업

순천시가 고유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대를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인 양미역취 제거 사업을 시작했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7일부터 8월 말까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양미역취 제거반을 편성해, 순천만과 동천·이사천 일원 약 5ha서 서식하는 양미역취를 제거할 예정이다.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종 양미역취는 국화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가을철에 유채꽃과 유사한 노란 꽃을 피우면서도 꽃은 개체당 2만 개 이상의 종자를 생산할 정도로 강력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다.

집단으로 서식지를 형성해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토종 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양미역취가 순천만 인근에서 동천·이사천 등을 따라 도심 근처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제거해 갈대 등 토종식물의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미역취가 꽃은 예쁘지만, 고유 식물 종들의 서식을 방해하는 만큼 지속적인 퇴치작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거반은 꽃과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게 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결혼 축하금 200만원 드립니다"

광양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이 결혼할 경우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축하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남 지역 내 1년,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나승도 광양시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배우자와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사랑상품권 판매액 600억원 돌파

보성군의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판매액이 600억원을 돌파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705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 608억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환전액도 55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400억원으로 2019년(11억원) 대비 4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해는 1분기 발행액만 30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배 가량 늘었다.

현재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82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보성사랑카드도 도입했다. 구매처도 기존 농·축협에서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광주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보성군은 긴급 재난 생활비 38억원도 지역화폐로 지급(1인당 10만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55억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금(3억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기존 현금으로 지급했던 공무원 복지포인트(7억원)·일숙직비·연가보상비·시상금 등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변경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 상품권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지역 내 소비도 늘고 있다"며 "골목상권·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정책 발행분에서도 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